

# 선비의 산

심신수양하고

세상통찰하다



##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31>

제8부 여행과 문학

③ 조선시대 옛 선비의 명산 감상유람



와유록(臥遊錄) 고문헌 표지(왼쪽)와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와유록목록'.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기록 다수 수록)

### 조성식 한국학호남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 기획협력처장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영국의 젠틀맨(gentleman), 중국의 신사(紳士), 조선의 선비는 종종 시대 흐름의 비교서술에서 등장하곤 한다. 학술적인 고증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회적·문화적인 시대 흐름을 비교 서술하는데서 함께 언급하곤 한다.

조선시대 선비는 영국의 젠틀맨, 중국의 신사와 마찬가지로 세속에 있으면서도 자연을 외경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 심정을 기록으로 남기곤 했다. 조선의 선비들은 경세가를 지향하는 심정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지만,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는 공자의 가르침과 '태산을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라는 공자의 정신에 따라 산수를 유람하면서 특히 명산을 즐기면서 심신을 수양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시대 옛 선비들이 남긴 유산기(遊山記)에 대해서 정원립(鄭元霖; 1731~1800)의 '동국산수기(東國山水記)'(하버드대 앤칭도서관 소장본)를 편역한 전승열·허경진은 "인간이 자연에 들어가고 자연이 인간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몰아일체(物我一體)"의 기록들이라고 말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기록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산을 유람하며 남긴 글들이 많다. 선비들은 금강산, 백두산, 지리산, 관악산 등 옛날에도 요즘에도 유명한 산들을 유람하면서 이란저런 글들을 많이 남겼다. 고경명의 '유서석록(遊瑞石錄)', 유몽인의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이인상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 조호익의 '유묘향산록(遊妙香山錄)', 주세붕의 '유정량산록(遊淸涼山錄)', 서명응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 최익현의 '유한라산기(遊漢峯山記)' 등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옛 선비들은 교통지리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에 명산을 쉽게 오를 수 없었다. 그렇기에 옛 선비들이 찾았던 산수유람 책 가운데는 전국의 명산에 대한 유산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산기 가운데 옛 선비들이 첫 번째로 찾았던 필독서는 전국 각지 유명한 산의 경치를 세밀히 담아낸 '와유록(臥遊錄)'이었다. '와유록'은 조선시대에 산수유람에 대한 선비들의 바람이 많아짐에 따라 유람의 안내서가 필요해 산수유람의 기록을 모은 것이기도 하였지만, 직접 산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전국의 명산 유람을 대리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도 하였다. '와유록'은 글자 그대로 누워서 유람하는 책이었다. 책 한 권으로 조선 팔도의 산수 절



1574년 제봉 고경명이 무등산을 유람하며 남긴 '유서석록(遊瑞石錄)'에서는 서석대를 "네 모퉁이를 반듯하게 깎고 갈아 층층이 쌓아 올린 품이 마치 석수장이가 먹줄을 튕겨 다듬어서 포개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감성적으로 풀어쓰고 있다. <광주일보 DB>

### 조선 팔도 명산 절경 생생히 감상하는 '와유록'

### 1547년 고경명 장군 무등산 유람기 '유서석록'

### 풍광에 대한 감성·모습·유적·연혁 등 소개

### 성리학 무너지자 선비들 유산기 전통 사라져

경을 그야말로 생생히 즐길 수 있었고 기억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전국의 명산을 유람한 선비들은 명산의 풍광에 대한 자신의 견문, 감상을 감성적으로 써서 다른 이들이 산을 유람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도록까지 배려하곤 했다. 예컨대, "내달리는 듯한 산세는 말(馬)과 비슷하고, 뽕뽕이 늘어져 절하는 듯한 바위와 절벽들은 부처와 같다"는 표현이다. 또한 용이 놀았다는 '용유담(龍遊潭)'에서는 "푸른 삼나무와 붉은 소나무가 울창한 곳에 다시 찰나무와 담쟁이덩굴이 얽히고 설킨다. 길게 일자로 뻗은 커다란 바위가 두 벼랑을 갈라 거대한 협곡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로 동강(東江)이 흐르다가 쏟아지니 허연 포말들이 서로 찰고 부딪혔다. 바위는 사나운 물결에 스치고 갈리어 움푹 파이기도 하고, 혹은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며, 혹은 딱 벌어져 틈이 나 있기도 하고, 혹은 평평한 마당을 이루기도 하였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400여 년 전 무등산 유람기록에도 등장한다. 1574년(선조 7년) 제봉 고경명이 무등산을 유람하며 남긴 '유서석록(遊瑞石錄)'을 보면, "네 모퉁이를 반듯하게 깎고 갈아 층층이 쌓아 올린 품이 마치 석수장이가 먹줄을 튕겨 다듬어서 포개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감성적으로 풀어쓰고 있다. 고경명은 다른 선비들과 함께 무등산에 오르내리면서 16세기 무등산과 인근의 모습을 이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옛 선비들은 명산의 풍광에 대한 감성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명산을 찾아 자연을 외경하고 자연을 벗 삼아 호연지기를 기르는 태도나 시대적인 상황, 선비들의 교유관계, 현실적인 자신의 처지 등에 대한 심정을 고전에 대한 지적 편리를 바탕으로 한 문장으로 드러내거나 감성적인 문장으로 풀어내곤 했다.

황준량의 지리산 기행인 '유두류산기행편(遊頭流山紀行篇)'에서 "새에 어두워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관리)들도 어쩔지 못하지만 하늘을 넘어 날아다니는 새가 어찌 그물에 걸리겠는가"라고 표현하

였는데, 관리들의 학정을 비판하면서도 날아다니는 새를 자신에게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호연지기를 보여주고 있다. 옛 선비들의 유람은 세상을 통찰하는데 통일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세상을 통찰하는데는 세상 속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바라볼 때 더욱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옛 선비들의 유산기에는 명산의 풍광에 대한 감성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자연 외경, 호연지기, 시대적인 상황, 교유관계, 자신의 처지 등에 대한 심정 말고도 오늘날 우리들이 잘 모르는 전통유산에 대한 설명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특정한 산수의 풍광, 모습, 유적, 연혁 등을 자세히 적은 산수유기 뿐 아니라 명산의 유람을 기록한 시나 문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예컨대,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백두(頭)에서 흘러온(流) 산'이라는 뜻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더욱이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智) 사람으로 달라진다(異)'는 의미까지도 있음을 소개한다.

옛 선비들의 유산기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거의 있지 않았다. 조선시대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매김하면서 많이 등장하였다. 김기주의 '선비들이 유람을 떠난 까닭 : 유학(儒學)과 유람(遊覽)'(남명학연구 46권, 2015)에 의하면, 선비들이 유람을 떠난 동기는 세 가지인데, 첫째 배움, 둘째 휴식, 셋째 선현을 닮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옛 선비들의 유산기 전통은 선비들의 시대가 사라지면서 끊어지게 되었다.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선비들의 시대도 사라지게 되었고 선비들의 시대가 사라지면서 유산기 전통 또한 사라졌다. 성리학적 질서에 바탕하여 선비들의 시대가 등장하고 선비들이 세상을 통찰하기에, 성리학적 질서가 세워지면서 함께 유산기의 전통도 등장하였지만 성리학적 질서가 끝나면서 선비들의 시대도 사라졌기 때문에 유산기의 전통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지면 선비들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선비들의 시대도 끝나면서 선비들의 세상을 통찰하던 방식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광주전남협의회 정책위원장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집행위원

### 전라도 들여다보기

### 강진 칠량옹기

김형주

'남도답사 1번지'로 일컬어지는 강진은 다종다양한 문화재와 볼거리, 먹거리가 지천으로 어우러진 보배로운 땅이다.

강진은 백제때 도무군(道武郡)과 동음현(冬音縣)이 있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도무군을 양무군(陽武郡)으로, 동음현은 탐진현(耽津縣)으로 개칭하였다. 940년 양무군이 도강현(道康縣)으로 개칭되어 1018년에 영암군에 이속되었다. 탐진현은 처음 영암군에 속했다가 후일 장흥부에 속하게 되었다. 1417년에 도강과 탐진의 두 현을 합쳐서 강진현으로 만들고 탐진에 지소를 둘으로써 강진이 탄생하였다.

고려시대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청자기술을 도입해 점차 독자적인 기술로 독자적인 청자 문화를 일구어냈는데, 남부지방에서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산출지인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에 산재하고 있었다. 양질의 점토가 풍부하고, 만들어진 청자를 해로를 통해 개장으로 쉽게 운송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청자는 희귀성으로 인해 궁중이나 상류층에서 향유할 수 있는 고급문화에 속하여 서민들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기물(器物)이었다면, 서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물로는 용기를 들 수 있다. 청자와 더불어 강진 칠량면 봉황리 일대에서는 예로부터 용기제작이 매우 성행하였다. 그러한 것이 농촌인구의 감소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용기의 수요가 줄고 고된 일을 끼리는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현재 칠량옹기의 명맥은 중요무형문화재 96호 용기장 정운석씨와 전수자인 아들 영균씨가 목숨히 이어가고 있다.

'칠량옹기(七良甕器)'는 한때 내륙지방은 물론 법선에 실려 무안, 흑산도, 완도, 진도, 밀리는 경상도, 제주도까지 팔려나가기도 하였다. 칠량옹기를 비롯한 전라도옹기는 판장타령범이라는 제작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판장(板狀)타령범'이란 잘 반죽한 점토를 날 뺨지처럼 형태를 만들어 놓아두고, 원형의 바닥을 형성한 다음 점토판을 그 위에 둥그렇게 세워 올리면서 용기를 성형하는 기법이다. 판장타령범의 장점은 용기의 기벽(器壁)을 만드는데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기벽의 두께가 일정하며 기벽이 튼튼하여 2~3세의 곡식의 저장에 가능한 대형용기의 제작도 용이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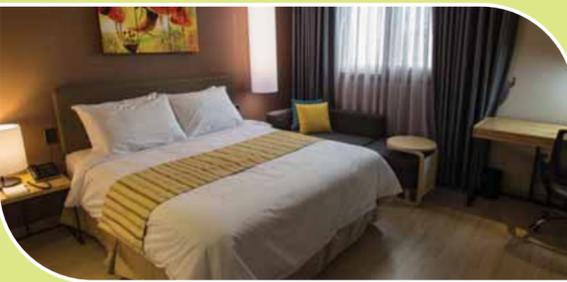
강진 칠량지역에서 용기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자문화가 쇠퇴하면서 청자를 빚던 도공의 후예들이 용기제조에 종사할 수 있었고, 선박을 이용한 용기의 운송으로 대량판로의 확보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숨을 쉬는 그릇인 용기는 통기성과 저장성이 뛰어나고, 식생활용구에서 주생활용구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적인 용기가 아닐 수 없다.

해방이후 한 동안은 광명단(光明丹 : Pb304)이 들어간 유약을 발라 유난히 번들거리는 광택이 나는 개량옹기가 시중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량옹기는 남 삼분이 기벽의 기포를 완전히 차단하여 간장이나 된장의 충분한 발효가 발생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질박하면서도 정겨운 조상들의 일상생활의 동반자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 곁을 떠나버린 용기를 다시 친근하고 소중한 존재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절실한 지금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과주맛집**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